

위험하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아도 돼

수리아의 검-I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5)

무니는 칸타카의 고삐를 더욱 꼭 쥐었다. 칸타카 보다 몸집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 동물은 생김새가 소나 염소와 비슷했지만, 확실히 그 둘과는 다른 종류로 보였다. 머리 양 쪽으로 세차게 뻗어 나온 검은 뿔 아래의 눈은 보글보글한 검은 털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뿔기를 씹는 듯 계속해서 우물거리는 입은 불길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불췌 튀어나온 어깨에서부터 등까지 흐르는 그다지 길지 않은 털은 매끄러워 보이는 검은 색인데 반해 배 아래로 늘어져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풍성한 털은 흰색이었는데, 아마도 그 털 때문에 몸집이 더 커 보이는 듯했다. 아무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동물은 계속 입을 우물거리며 데비 앞에 서 있었다. 난다가 데비에 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건 조라는 동물이야. 위험하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아도 돼.”

“조?”
무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이름이었다.

“응. 잠부에선 보기 힘든 동물이지만, 비데하에선 꽤 자주 볼 수 있네. 주로 이런 고원지대에 사는 초식 동물이지.”

“그럼 야생 동물이라는 거야?”
“야생도 있고, 소나 염소처럼 길들여서 가축으로 기르기도 하고.”

“아무튼 동물은 동물이라, 이 말이지. 그럼 재 따라가면 물이 어디 있는 지 알 수도 있겠네? 재도 물은 마시면서 살 거 아니야?”

무니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그런데 그때 잠잠하던 데비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조가 회오리 모양의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가 느릿느릿 몸을 돌려 어딘가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였다. 무니가 칸타카와 함께 밀찍이서 그 뒤를 따랐고, 또 그 뒤로는 난다가 데비의 손을 꼭 쥐고 걸어오고 있었다. 조는 헤가 뉘엿뉘엿 저가고 있는데도 급할 거 없다는 듯 어슬렁거리며 산비탈을 익숙하게 걸어 올라갔다. 반면 난다 일행 모두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운 위험천만한 산행이었다.

“해해. 저 녀석은 어째서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야. 설마 물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인 건 아니겠지?”

무니가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갈증이 점점 심해졌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은 없어.”

난다 역시 힘들게 고개 짓을 해보이며 대답했다. 말 할 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데비까지 끌고 가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다.

“어! 멍했다.”



삽화 · 김홍인

이윽고 가장 앞에서 조를 따라가고 있던 무니가 외쳤다. 평지로 접어드는 길목 같아 보였다. 조는 그들이 처음 봤을 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일행 역시 모두 멈춰서 그런 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렇게 잠시 서 있던 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무니가 얼른 돌아보며 말했다.

“일단 내가 먼저 올라가볼게.”
칸타카도 그런 무니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무니에 이어 칸타카의 꼬리까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한 난다는 문득 아까부터 왼손이 허전하다는 걸 깨달았다. 데비를 끌고 오던 손이 었다. ‘도대체 언제 사라진 거지?’ 난다는 기억을 되짚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무니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차크라발라산에 착륙할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걸까. 난다는 다시 사르나트를 떠올리고는 주머

니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없었다. 깜짝 놀라 모든 곳을 뒤졌지만 역시 사르나트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헤가 다 지지도 않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황 상태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었다. 난다는 잠시 생각하다 무니가 사라진 곳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데비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르나트는? 아마 아까 그 수은이 흐르는 강가에서 데비의 비명 때문에 놀라 떨어트렸을 가능성도 있다.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무니나 칸타카가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말?’ 자신의 그런 낙관에 금방 반론이 떠올랐지만, 일단 가던 길을 마저 가는 수밖에 없었다. 난다는 아까 조가 서 있었던 그 길목 앞에 도착했다. 무니와 칸타카의 자취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속을 짐작할 수 없는 암굴만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알고 있다는 듯 큰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난다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무니와 칸타카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들은 그 조라는 동물이 동굴 안으로 사라지자, 잠시 망설이다 결국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무니는 금방 후회했다. 빛 한 줄 없는 굴 안이 ‘얼음의 성’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은 뒤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계속 걸어갈 수도 없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조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도저히 앞으로 더 걸어갈 수가 없었다. 무니는 답답한 듯 옷깃을 부여잡았다. 더 이상 조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완벽한 암흑이었다. 그때, 익숙한 풀피리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다. 칸타카였다. 마치 자신은 잠시도 무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안정을 주는 소리였다. 그제야 무니는 꼭 막혀있던 숨을 토해냈다. 무니는 앞장 서 걸어가는 칸타카의 꼬리를 꼭 짊 채,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 암흑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니는 동굴이 꽤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금방 열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몰의 태양처럼 주황색을 띤 그 빛은 동굴의 끝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서히 눈이 그 밝음에 익숙해지자 동굴 끝의 풍경도 어렴풋이 보였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 도착해 처음 보는 색이었다.

“저기라면 정말 물이 있을 거 같지 않아?”
무니가 쥐고 있던 칸타카의 꼬리를 흔들며 밝게 말했다. 그들의 얼굴이 석양빛으로 물들어 갔다.

태양이 서쪽 바다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진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바다는 부드럽게 출렁거렸고, 하늘은 고요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태양이 바다에 잠기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적막이었다. 이제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그 풍경 속에 무엇인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 마리의 말이였다. 그것은 고요를 깨뜨리며 공중

에 힘차게 발을 굴렀다. 그리고 이내 거의 잠겨버린 태양의 윗부분을 빠르게 지나 순식간에 그 풍경 속에서 사라졌다. 하늘은 이제 보랏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편, 한 노인이 눈의 산 정상에서 연못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연못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 작은 움푹임도 없는 수면 위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수면에 비친 달 아래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은 달의 색과 비슷했다. 흰 얼굴에선 차가움이 느껴졌으나, 미소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다. 각진 부분이라고는 없었다. 눈, 코, 입술마저도 둥글둥글 했다. 전체적으로 티 한 점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라서 지난 세월을 말해주듯 깊게 패인 주름이 아니라면 노인이라고 믿기가 힘들 정도였다. 게다가 그는 눈의 산의 한기에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는 듯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한참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탓에 고개가 아픈다는 듯 노인은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뒷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마침 저기 하늘 위에서 자신의 말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생각났다는 듯 연못의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한 모금 마셨다.

“괴로움이 없는 연못이라...”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질렀더니, 연못에 손을 넣어 수면 위에 파문을 일으켰다.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었음에도 넓은 연못에 금방 커다란 물결이 일어났다. 노인은 돌아서서 자신의 애마가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땅에 발을 디딘 말은 곧바로 풀피리 소리를 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그래. 먼 길에 고생이 많았구나.”
노인은 애제라는 듯 자신의 말을 몇 번 쓰다듬어 주고는 연못을 가리켰다. 말은 주인의 손짓을 따라가 연못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일단 목을 축인 다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다오. 야생이야.”

‘야생야’, 무니 일행에게는 잠시 낯카라고 불리기도 했던 말은 주인에게 귀를 한 번 쫓겨다 보이며 꼬리를 흔들며 답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던 노인은 갑자기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다. 입가에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젠장! 그의 시선 변화에 놀라 이 소리를 입 속으로 삼킨 자는 테드모였다. 그는 모습을 감추고 노인을 몰래 훑쳐보는 중이었다. 테드모는 더 높은 공중으로 열린 날아올랐다. 저 노인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눈의 산까지 올라온 것일까. 분명 루드라가 자신의 신전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 테드모는 이제 루드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같은 건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저 노인네를 이번엔 놓치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 런지 모를 일이다. 아무래도 크리슈나를 찾아야할 거 같다. 이제 곧 그의 수면기도 끝나가니 말이다. “젠장! 이번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 뱉고 말았다. 그 꼭 막히고 아니꼬운 크리슈나의 수하랑 맞닥뜨려야 하나!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때 오르지 입맛이 썩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행복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라,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옥선사 불우이웃돕기

추석, 명절날 불우이웃돕기

백미 : 200kg
생활필수품: 50가구
불자자녀 장학금 전달

주지 : 무행동성

부산시 동래구 명서로 1484호
전 화 : 051)531-0478
팩 스 : 051)531-0010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
옥 선 사

부산내에 계시는 봉사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을 모집니다